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초등영어학습자의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tivation and Strategie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Learners of English

지도교수 이 효 응

2003년 1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조 미 란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초등영어학습자의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tivation and Strategie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Learners of English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조미란

本 論 文 을 曹美蘭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2003년 12월 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조미란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제기.....	1
2. 연구의 한계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외국어 학습동기.....	4
1) 외국어 학습동기의 정의와 중요성.....	4
2) 외국어 학습동기의 분류.....	5
2. 외국어 학습전략.....	7
1) 외국어 학습전략의 정의와 중요성.....	7
2) 외국어 학습전략의 분류.....	8
3. 외국어 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III. 연구방법	12
1. 연구대상과 조사기간.....	12
2. 연구도구와 분석방법.....	13
1) 연구도구.....	13
2) 분석방법.....	16
IV. 결과 및 논의	18
1. 동기분석.....	18
1) 전반적 동기분석.....	18
2) 성별에 따른 동기.....	22
3) 학년에 따른 동기.....	24

4) 성별과 학년에 따른 동기.....	25
(1) 남학생의 학년별 동기.....	25
(2) 여학생의 학년별 동기.....	27
2. 전략분석.....	28
1) 전반적 전략분석.....	28
2) 성별에 따른 전략.....	31
3) 학년에 따른 전략.....	33
4)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전략.....	34
(1) 남학생의 학년별 전략.....	34
(2) 여학생의 학년별 전략.....	36
3. 상관관계 분석.....	37
1)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37
2) 성별에 따른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39
3) 학년별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41
V. 결론 및 제언	44
참고문헌	47
Abstract	53
부록	55

표와 그림 목차

<표 1> 직접전략.....	8
<표 2> 간접전략.....	10
<표 3> 조사대상자.....	13
<그림 1> 조사참가자 백분율 그래프.....	13
<표 4> 동기의 하위범주와 내용.....	14
<표 5>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의 신뢰도 분석.....	16
<표 6> 전반적 동기분석.....	19
<표 7> 초·중·고등학생의 동기비교.....	20
<표 8> 초·중·고등학생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비교.....	21
<표 9> 성별에 따른 동기.....	22
<표 10>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 본 남, 여 동기차이.....	23
<표 11> 학년별 동기 비교.....	24
<표 12> 남학생의 학년별 동기.....	25
<표 13> 여학생의 학년별 동기.....	27
<표 14> 전반적 전략분석.....	29
<표 15> 초·중·고·대학생의 전략 비교.....	30
<표 16> 성별에 따른 전략.....	31
<표 17> 초·중·고·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사용 전략 비교.....	32
<표 18> 학년에 따른 전략.....	33
<표 19> 남학생의 학년별 전략.....	35
<표 20> 여학생의 학년별 전략.....	36
<표 21>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37
<표 22> 성별에 따른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39
<표 23> 학년별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4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제기

영국의 Crystal (1997)에 의하면 전세계의 15억 정도가 영어를 사용하고 웹사이트의 80퍼센트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영어 학습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필리핀의 경우 모국어인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함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국영방송에서 저녁 골든아워에 영어회화 방송을 하고 있다.

한편, 언어 습득 분야에서 LAD가설¹⁾과 결정적 시기 가설²⁾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도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에는 조기영어교육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1981년부터는 초등학교 특활과목으로 영어가 채택되었으며 1997년도에는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사설 영어교육기관이 증가하고 해외 조기유학 열풍이 이는 등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어떤 학습자는 영어학습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또 어떤 학습자는 그렇지 못하는 등 영어학습에 있어 개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유발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은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의 전략을 그렇지 못한 외국어 학

1)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언어습득 장치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어 1세경부터 사춘기까지의 어린이가 언어를 단시일 내에 쉽게 습득한다는 1960년대의 Noam Chomsky의 가설.

2) 사춘기경의 뇌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인 두뇌의 측면화 (lateralization)가 발생한 후에, 제 2언어를 모국어 화자와 같은 정도로 습득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는 신경생물학자들의 가설.

습자에게 가르쳐 준다면 외국어 학습에 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어를 더 학습하고자하는 동기가 더욱 부여된다고 하였다. 외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수록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hrman & Oxford, 1989; MacIntyre & Noels, 1996; Oxford & Nyikos, 1989; Wenden, 1986; Wen, 1997).

이옥주 (1998)와 이효용 (1999)의 한국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 및 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성취동기와 자기 발전적 동기가 높은 학생들이 영어학습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것이 높은 영어학습 성취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문현규, 2002; 박춘식, 2001; 이용인, 1995; 정은희, 2003; 조춘미, 2000; 채미정, 2001)는 영어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그리고 영어 학습 전략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는 많았으나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동기와 전략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학습에 있어 동기는 무엇인지, 어떤 학습 전략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성별과 학년에 따른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도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동기와 전략에 관한 향후 연구에 기여하고 초등 영어 교과 담당자들이 초등 영어 학습자를 위한 초등영어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였다. 설문지만으로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와 전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면접법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조사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인터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으로 나와 있지 않는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은 설문문항 마지막에 응답자가 자유롭게 기술토록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서술한 내용과 설문문항 내용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둘째, 초등 4학년 학생의 경우 설문문항 대한 이해 부족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해가 가지 않은 문항은 질문하도록 하였으나,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은 질문 없이 설문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부산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타지역과 전국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국어 학습동기

1) 외국어 학습동기의 정의와 중요성

Harmer (1991)에 의하면, 동기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추진력이라고 하였고, Gardner (1995)는 동기란 행동에 활력을 주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 동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동기 유형 중 하나이며, 학습에 대한 의욕, 태도, 목표의식, 의지의 정도를 뜻한다 (권형자, 1992).

외국어 학습에서의 동기란 ‘무엇이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어 학습을 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 학습자 내부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외국어 학습동기의 정의를 내려보면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업 활동을 모색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의도한 학업 이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Scarcella & Oxford (1992)의 연구에서, 그들은 높은 동기를 가진 학습자는 목표언어³⁾의 화자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있어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Brown (1994)도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인간의 동기가 유발되었을 때 이루어지고 제2언어 학습에서도 학습자의 적절한 동기 유발에 의해 성공할 수 있다고 외국어 학습동기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3) 학습자가 배우려는 목표가 되는 언어로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고자하는 사람의 목표언어는 영어가 된다

2) 외국어 학습동기의 분류

외국어 학습 동기에 있어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동기는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이다. 현재에는 보편적인 용어가 된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는 Lambert & Gardner (1959)가 처음으로 소개한 사회 심리적 동기 모델이다.

통합적 동기란 외국어 학습자가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문화와 집단에 자기 자신을 동화시키기 위하여 외국어를 학습하는 동기이다. 그러나 Lambert & Gardner (1959)가 제시한 이 통합적 동기는 고급단계의 학습자와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환경에서 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면에 초보단계와 중간단계의 학습자와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환경에서 더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동기는 도구적 동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도구적 동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도구적 동기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외국어로 된 서적을 보기 위해서와 같은 실용적인 이유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동기이다.

이 두 동기 중 통합적 동기는 ESL 환경에서 제2언어 습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Chastain, 1975; Day, 1987; Gardner, 1985, 1988; Gardner & Lambert, 1972; Gardner & MacIntyre, 1993; Spolsky, 1969; Strong, 1984; Svanes, 1987; Wen & Johnson, 1997).

Lukmani (1972)는 EFL 환경에서 봄베이의 비서구화된 여성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통합적으로 동기화된 학습자보다 도구적 동기를 갖고 있는 학습자의 성취도가 더 높았다. 그 외 몇몇 연구에서도 EFL 환경에서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기는 도구적 동기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Evans, 1982; Gardner & MacIntyre, 1991 등).

따라서 학자들은 Gardner와 Lambert의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만

으로 외국어학습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동기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오래 전부터 교육심리학자들에 의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근래에는 외국어 교육학자들도 이 두 가지 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Deci, Schwartz, Sheinman & Ryan (1981)에 의하면 내적 동기란 호기심, 흥미, 욕구 등의 내적 동기가 학습활동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학습에 참여하는 상태로 이때의 보상은 학습에 대한 만족감, 성공감, 성취에 대한 자긍심, 자아 존중감 고양 등의 형태로 학습 활동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영어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로 살펴보면, 영어공부 하는 것 그 자체를 재미있어하고, 취미활동처럼 좋아하는 것 등이다.

이에 비해 외적 동기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어떤 다른 목적 즉, 학교성적, 상, 칭찬 등과 같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을 위해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혜원, 1993).

1970년대와 80년대의 연구에서는 외국어학습에 있어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외국어 학습에 있어 상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Harter & Jackson, 1992; Heyman & Dweck, 1992; Sansone & Morgan, 1992).

앞서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전부를 설명하지 못했던 것처럼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만으로 영어 학습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외국어학습동기를 찾고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의 동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외국의 학습자들에 것이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몇몇 연구자들 (이효웅, 1999; 조춘미, 2000)에 의해 교육현장에서 직접 조사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어학습동기 측정

도구가 만들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선행 연구 도구를 사용하여 동기와 전략을 조사하였다.

2. 외국어 학습전략

1) 외국어 학습전략의 정의와 중요성

외국어학습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전략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xford (1990)에 의하면, 전략은 고대 그리스의 군 통솔력 혹은 전술을 의미하는 ‘strategia’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Webster 사전에 의하면, 전략이란 ‘군사적 행위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과학’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옥주, 1998 재인용). 비군사적인 환경에서의 전략의 개념은 목표 성취를 향한 계획, 단계, 혹은 의식적인 행동으로 정의되어오고 있다. 오늘날에는 전략이라는 용어가 군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영, 광고, 마케팅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Cohen (1998)은 외국어 학습 전략을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과정들 즉, 외국어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목표언어에 관한 정보를 저장, 보유, 기억, 적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외국어 학습 전략을 정의하였고, 박기표 (1998)는 ‘학습자들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및 사고과정’으로 외국어 학습 전략을 정의했으며 Scarcella & Oxford (1992)는 학습전략은 ‘학습자 자신의 학습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한 특별한 행동, 행위, 단계, 혹은 기술’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외국어 학습전략이란 외국어학습을 할 때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전략으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O'Malley & Chamot (1990)과 Wenden & Rubin (1987)의 연구에서

언어학습전략은 학습과정을 더 효과적이고 자기 주도적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 학습자들이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효웅 (1999)은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전략은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주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있어 전략 사용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외국어 학습전략의 분류

현재 외국어 학습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Oxford (1990)의 전략 범주분류체계를 많이 채택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 전략을 연구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Oxford의 전략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Oxford의 외국어 학습전략의 구체적인 분류를 보면 그녀는 외국어 학습전략을 간접전략 3가지, 직접전략 3가지로 나누었다. 이 6가지 전략은 독립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표 1> 직접전략 (Direct Strategies)

기억 전략 (Memory Strategies)	a. 이미지와 소리 사용하기 b. 복습 잘하기 c. 행동 취하기
인지적 전략 (Cognitive Strategies)	a. 연습하기 b. 메시지 수신과 발신 c. 분석과 추론 d. 입력과 출력을 위한 구조 만들기
보상 전략 (Compensation Strategies)	a. 지능적으로 추측하기 b. 대화와 쓰기에서 모방하여 극복하기

(출처: Diagram of Strategy System, Oxford 1990, p. 17)

직접전략 (Direct Strategies)이란 다양하고 구체적인 과업과 상황에서 새로운 언어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전략으로 하위 전략에는 기억 전략 (Memory Strategies), 인지적 전략 (Cognitive Strategies), 보상 전략 (Compensation Strategies)이 있다.

기억 전략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것을 도와주는 전략이다. 집단화하기 (단어의 형태, 주제, 실용적 기능, 언어학적 기능, 유사어와 반대어로 묶기), 새로운 언어정보와 이전 개념 관련 지어 연상하기 (예: school→paper→tree→woods), 새로운 단어를 문맥 안에서 추측하기, 심상과 핵심어 사용하기, 새로운 어휘의 소리와 비슷한 우리나라 말 연결하기, 시간간격을 두고 복습하기,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며 기억하는 것은 기억전략이다.

인지적 전략은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략이다. 연습하기 (반복하여 말하거나 행동하기, 자연적이고 현실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 연습하기 등), 메시지 주고받기 (글을 읽을 때 주요 개념을 파악하고 관심있는 정보 찾기), 분석과 추론하기 (귀납적 추리, 표현분석, 대조분석, 번역, 전이 등), 입·출력을 위한 구조 만들기(필기하기, 요약하기 등)가 인지적 전략에 속한다.

보상 전략은 외국인과 대화할 때, 외국어 지식의 부족과 한계로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몸짓을 사용하거나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간접전략 (Indirect Strategies)은 언어학습을 관리하는 역할과 관련된 전략으로 상위인지 전략 (Metacognitive Strategies), 정의적 전략 (Affective Strategies), 사회적 전략 (Social Strategies)으로 나뉜다.

<표 2> 간접전략 (Indirect Strategies)

상위인지 전략 (Metacognitive Strategies)	a. 학습에 집중하기 b. 학습을 배열하고 계획하기 c. 학습 평가하기
정의적 전략 (Affective Strategies)	a. 불안 낮추기 b. 자기 고무시키기 c. 감정온도 느끼기
사회적 전략 (Social Strategies)	a. 지능적으로 추측하기 b. 대화와 쓰기에서 모방하여 극복하기 c. 다른 사람의 마음과 공감하기

(출처: Diagram of Strategy System, Oxford 1990, p. 17)

상위인지 전략이란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어휘, 혼동을 주는 규칙, 쓰기 체계, 다른 사회관습으로 인한 혼동 속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주의집중하기, 외국어 학습 목적과 목표장·단기적으로 계획하기, 외국어 학습을 위한 연습기회 찾기, 새로운 언어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하기 (예: 1개월 혹은 6개월 전보다 이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대화에 있어 몇 퍼센트나 더 이해하게 되었는지 평가하기)가 있다.

정의적 전략이란 불안 낮추기 (예: 음악듣기, 심호흡하기 등), 자기 고무하기 (예: 자신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기술하기, 자기 보상법 등), 감정온도에 주의 기울이기 (예: 외국어 학습 일기 쓰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 타인과 이야기하기 등)이다.

사회적 전략은 화자에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확인 요청하기 (예: 화자에게 대화 중에 바꿔 말하기, 천천히 말하기, 예를 들어 말하기 등을 요청하기), 외국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학습자나 외국인 혹은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과 협동하기, 감정이입하기 (예: 문화에 관한 이해 발전하거나 타인의 감정과 사고 인식하기 등)가 여기에 속한다.

3. 외국어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외국어 학습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학습자의 나이, 성별, 학습동기, 성격, 문화적 배경, 학습기간, 학습환경이 학습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Ehrman & Oxford, 1989; Oxford & Nyikos, 1989; Oxford, Nyikos & Ehrman, 1988; Politzer, 1983).

Ehrman & Oxford (1989)와 Oxford & Nyikos (1989)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특히 여성 학습자가 사회적 전략 사용에 있어 우세하다는 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 연구에서도 김영민 (1998)은 초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전략 사용의 차이는 연령에서도 나타나 연령이 더 많은 학생들이 연령이 적은 학생들보다 더 다양한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alystok, 1981; Chamot, O'Malley, Jupper & Impink-Hernandez, 1983).

우리 나라에서는 이옥주 (1998)의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동기 유발의 원인으로 나타났던 성취동기가 영어학습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효웅 (1999)의 연구에서는 자기 발전적 동기가 영어학습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전략 사용, 성별과 학년에 따른 동기를 각각 살펴본 다음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사용의 상관관계를 성별과 학년의 관점에서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조사기간

본 연구는 2003년 6월 부산 시내 D 초등학교와 Y 초등학교의 4, 5, 6학년 남녀 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초등학생은 뇌의 반구편중화가 진행 중이어서 모국어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고 하였다 (Scovel, 1969). Piaget의 인지발달 연구에서 7-11세의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동들은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외국어 습득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형엽,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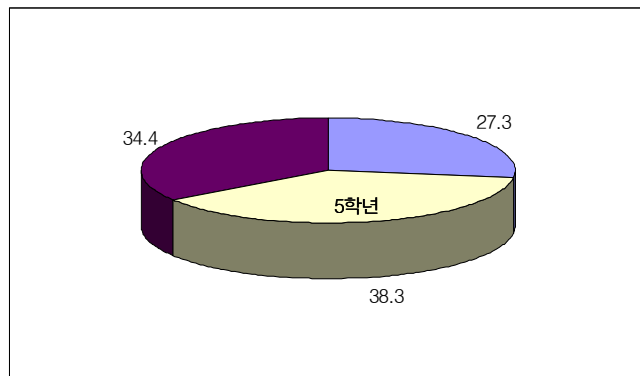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ESL 환경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영어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환경이라는 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시기에 있는 학습자들이 EFL 환경에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이미 5, 6년 정도 영어 학습에 대한 경험이 있고 반구 측면화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 사용을 비교해 보는 것은 언어 발달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초등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 중 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학습해본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이 학년에 따라 어떤 동기와 전략을 사용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초등 4, 5, 6학년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 3> 조사 대상자

		명	퍼센트
4학년	남학생	25	27.3
	여학생	25	
5학년	남학생	35	38.3
	여학생	35	
6학년	남학생	33	34.4
	여학생	30	
합계		183	100.0



<그림 1> 조사 참가자 백분율 그래프

2. 연구도구와 분석방법

1) 연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영어학습동기의 측정도구는 설문지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이효용 (1999)과 조춘미 (2000)가 고안한 설문문항 중 초등학생에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문항을 제외한 30문항을 선택하여 5점 척도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확실히 그렇다 [5])으로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곳에 표기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초등학생의 통합적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이효웅 (1999)의 사회 문화적 동기 설문문항을 선택하였고, 초등학생들도 중·고·대학생들처럼 자기발전을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발전적 동기의 설문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외에도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도구적 동기의 설문문항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가 학습자의 영어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춘미 (2000)가 직접 고안해낸 교사 요인을 교사 동기⁴⁾로 바꾸었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의 동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설문지의 내용을 <표 4>와 같이 7가지 동기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표 4> 동기의 하위범주와 내용

내용	관련 문항
자기발전적 동기	8. 유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9.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11.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5.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16. 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적 동기	1. 영어공부에 흥미와 재미있어서 6.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7. 영어로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서 13.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서 22. 영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23. 외국어를 배운다는 나의 만족 때문에

4) 교사 동기란 학습자가 교사의 영향을 받아 동기화 되는 것으로 편의상 교사 동기라고 칭한다.

도구적 동기	2. 영어가 세계의 공통어이기 때문에 5.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28. 영어로 된 노래, 영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동기	3. 해외여행을 할 때 의사소통을 위해서 4.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12. 해외에서 생활할 것에 대비해서 30. 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통합적 동기	17. 영어를 말하는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이해하기 위 해서 24.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25. 미국인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27. 펜팔을 하기 위하여
외적 동기	14. 좋은 영어 성적을 받기 위해서 18. 부모님, 가족 등 주변에서 해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21.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동기	10. 영어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셔서 19. 영어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20. 영어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29. 영어선생님께 칭찬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전략사용에 관한 측정도구는 설문지 방식으로 Oxford (1990)가 EFL 환경에 있는 외국어 학습자에 맞도록 고안한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SILL)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50 문항으로 5점 척도 (매우 많이 사용한다 [5], 꽤 사용한다 [4], 어느 정도 사용한다 [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 방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전략 사용 측정을 위한 설문내용은 부록 1(영어 학습전략 사용 설문지)에 실려있다.

2)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α 값이 .60을 넘으면 신뢰있다고 한다.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표 5>과 같이 외적 동기는 .58로 나타났지만 나머지문항은 .60을 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어진다.

<표 5>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의 신뢰도 분석

구분		문항	Cronbach'α
영어 학습 동기	자기발전적 동기	8, 9, 11, 15, 16	.81
	내적 동기	1, 6, 7, 13, 22, 23	.85
	도구적 동기	2, 5, 28	.66
	의사소통 동기	3, 4, 12, 30	.80
	통합적 동기	17, 24, 25, 26, 27	.77
	외적 동기	14, 18, 21	.58
	교사 동기	10, 19, 20, 29	.83
직접 전략	기억 전략	1~9	.81
	인지적 전략	10~23	.85
	보상 전략	34~29	.84
간접 전략	상위인지 전략	30~38	.86
	정의적 전략	39~44	.80
	사회적 전략	45~50	.72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성별에 따른 동기와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또한 학년에 따른 동기와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⁵⁾을 실시하였다.

동기와 전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⁶⁾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SPSS WINDOW 10.0을 사용하였고 95%의 신뢰수준⁷⁾에서 검증되었다.

5) t-test와 ANOVA분석은 분산분석 방법으로 분산 분석이란 2집단이상 (독립변수)의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으로 2집단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는 T-TEST를 이용하여 t값으로 나타내고, 3집단 (독립변수)이상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는 ANOVA를 이용한 F검증을 하게 된다.

6) 상관관계 (Correlation)분석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변수들간의 관련성은 위해 상관계수인 피어슨(Pearson) R계수를 이용해 관련성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한다. 상관관계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척도가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r)이다. 상관계수 r은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 즉 측정된 자료가 좌표상에 정 (positive, +)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깝다면 그때의 상관계수는 정 (+)이고, 음 (negative, -)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깝다면 음 (-)의 상관계수를 갖는다.

7) 신뢰수준 혹은 신뢰도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연구를 실시했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수준을 뜻한다.

IV. 결과 및 논의

이 장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초등 4, 5, 6 고학년의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을 살펴보고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동기분석

1) 전반적 동기분석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초등학생들은 스스로에 의해서라기보다 외부의 영향으로 영어를 학습한다고 믿어져왔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외부의 영향(M=3.18)보다는 자신의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과 같은 자기 발전적 동기(M=3.3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반적 동기분석

구분	M (평균)	SD (표준편차)
자기 발전적 동기	3.34	.90
내적 동기	2.87	1.12
도구적 동기	3.07	.94
의사소통 동기	3.17	1.08
통합적 동기	2.61	.95
외적 동기	3.18	.98
교사 동기	3.04	1.14

이 연구 결과 통합적 동기 (M=2.61)가 7개의 영어학습 동기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의 EFL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영어문 화권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되어진다.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를 비교해보면 통합적 동기 (M=2.61)보다 도구적 동기 (M=3.0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대상을 연구한 김정미 (2003)의 연구에서도 통합적 동기는 M=3.21, 도구적 동기는 M=3.38로 도구적 동기가 통합적 동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비교해보면 내적 동기 (M=2.87)가 외적동기 (M=3.1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적 동기는 자기 발전적 동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동기이다. 이는 김정미 (2003)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내적 동기보다 외적동기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는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성취감과 만족감을 위해 영어를 학습 하기보다 외적인 보상을 얻고 처벌에 피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자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여, 직·간접적으로 학습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던 교사 동기는 7개 동기 중 4번째로 높은 동기지만 표준편차 (SD)가 1.14로 나타나 학생마다 교사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많고 적음, 부정적으로 많고 적음에 기인한다고 판

단되어진다.

<표 7> 초·중·고등학생의 동기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발전적 동기	3.34	3.30	3.50
내적 동기	2.87	2.50	2.73
도구적 동기	3.07	3.21	3.31
의사소통 동기	3.17	2.95	3.05
통합적 동기	2.61	2.33	2.35
외적 동기	3.18	3.30	3.51
교사 동기	3.04		

*는 이효용 (1999)

위의 <표 7>은 초등학습자의 영어학습 동기와 중·고등학교 학습자의 영어학습 동기를 비교한 것이다. 중·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동기 (중학생은 $M=2.95$, 고등학생은 $M=3.05$)가 초등학생의 의사소통 동기 ($M=3.1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회화위주로 영어수업이 진행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위주로 영어를 공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혹은 영어 능숙자와 의사소통 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되어진다.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부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므로 중·고등학생의 도구적 동기와 외적 동기, 자기 발전적 동기가 초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적 동기의 경우 초등학생이 $M=2.87$ 로 3개의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Harter (1987)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 가까울수록 내적 동기의 수가 많고 중학교 학습자일수록 내적 동기가 현저히 저하된다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초등 영어 수업의 경우,

과업이 비교적 쉬워 중학생 보다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이미 5, 6년 동안 영어를 배운 중·고등학생에 비해 새로 접하는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와 재미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진다.

<표 8> 초·중·고등학생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비교

내용	고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상위집단)		초등학생***		초등학생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내적 동기	2.73	.94	2.59	.89	2.71	1.05	3.41	.86	2.87	1.12
외적 동기	3.51	.74	3.39	.79	3.58	.59	3.57	.87	3.18	.98

* 이효웅 (1999)

** 조춘미 (2000)

*** 김정미 (2003)

<표 8>의 초·중·고등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의 초·중·고등학생들은 내적인 호기심, 흥미, 성취감을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외부의 보상 즉,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발전적 동기인 이유로 많이 동기화 되어 영어를 학습하고,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 중 도구적 동기로 더 많이 동기화 되어 영어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와의 비교에서는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가 더 강하게 나타났고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은 대체로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에 의해 동기화 되어 영어학습에 임함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던 교사 동기는 7개 동기 중 4번째로 많았지만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개인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성별에 따른 동기

성별에 따른 영어학습동기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남학생 (M=3.33)과 여학생 (M=3.35) 모두 자기 발전적 동기가 영어학습에 있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성별에 따른 동기

구분	남학생 (n=93)		여학생 (n=90)		t	p
	M	SD	M	SD		
자기발전적 동기	3.33	1.00	3.35	.79	-.179	.858
내적 동기	2.70	1.22	3.04	.99	-2.017	.045*
도구적 동기	2.96	1.01	3.18	.85	-1.624	.106
의사소통 동기	3.13	1.15	3.20	1.01	-.392	.695
통합적 동기	2.60	.97	2.63	.93	-.205	.838
외적 동기	3.14	1.02	3.23	.93	-.671	.503
교사 동기	3.00	1.20	3.07	1.08	-.428	.669
총계	2.98		3.10			

p < .05

남녀학생 모두 통합적 동기는 우리 나라의 EFL 환경 영향으로 인하여 영어권 문화와 접할 기회가 적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학생 (M=2.63)이 남학생 (M=2.60)보다 통합적 동기가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것은 여학생들의 심리적인 동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언어능력이 남성보다 발달하여 그룹을 이루어 대화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합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교사에 의해 영어학습에 동기 부여가 되기보다 다른 원인 (자기발전적 동기, 도

구적 동기, 의사소통 동기, 외적 동기)에 의한 영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교사 동기의 경우, 남녀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여학생 (M=3.07)이 남학생 (M=3.00)보다 교사로 인해 영어 학습에 더 동기화가 되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표준편차 (M=1.20)가 여학생의 표준편차 (M=1.08)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교사가 남학생 개인의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여학생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은 <표 9>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내적 동기를 비교해보면 $p < .05$ 로 나타나 남학생의 내적 동기보다 여학생의 내적 동기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내의 선행연구 (김정미, 2003; 이옥주, 1998; 이효웅, 1999; 조춘미, 200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들 중 몇 개만 발췌하여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 본 남, 여 동기차이

내용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초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통합적 동기	2.23	2.47	2.18	2.47	3.12	3.30	2.60	2.63
내적 동기	2.56	2.85	2.42	2.76	3.34	3.50	2.70	3.04
외적 동기	3.56	3.47	3.37	3.41	3.45	3.69	3.14	3.23
도구적 동기	3.26	3.35	3.12	3.29	3.23	3.54	2.96	3.18

*이효웅(1999)

**김정미(2003)

3) 학년에 따른 동기

초등 4, 5, 6학년 별로 동기를 분석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학년별 동기 비교

구분	4학년 (n=50)		5학년 (n=70)		6학년 (n=63)		F	p
	M	SD	M	SD	M	SD		
자기발전적 동기	3.39	.95	3.31	.97	3.33	.79	.110	.896
내적 동기	2.82	1.20	2.94	1.11	2.83	1.09	.211	.810
도구적 동기	2.93	1.02	3.14	.86	3.10	.94	.801	.450
의사소통 동기	2.92	1.21	3.20	.92	3.32	1.12	2.002	.138
통합적 동기	2.59	.97	2.68	.91	2.56	.99	.280	.756
외적 동기	3.31	1.09	3.11	.87	3.16	1.00	.582	.560
교사 동기	3.08	1.25	3.21	1.11	2.81	1.05	2.206	.113

p < .05

<표 11>에서와 같이 4학년은 자기발전적 동기, 외적 동기, 교사동기 순으로, 5학년은 자기발전적 동기, 교사동기, 의사소통 동기 순으로, 6학년의 경우 자기발전적 동기, 의사소통 동기, 외적 동기 순으로 영어학습에서 동기가 강하게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5, 6학년 모두 영어학습의 주요 동기는 자기 발전적 동기로 즉,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교양과 지식을 쌓고, 미래의 꿈을 이루고, 유식한 사람이 되기 위해,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어 공부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낮게 나타난 동기는 통합적 동기였다. 이는 EFL 환경으로 인해 영어권 문화인과 동화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려는 원인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4, 5, 6학년 모두 통합적 동기보다 도구적 동기에 의해 영어를 학습하고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중 전학년 모두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 (김정미, 2003)와 비슷한 결과를 갖는다. 유일하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동기는 의사소통 동기로 이것은 영어 교과목을 접하면서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기본 문형에 대해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영어로 실제 의사소통 해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11>에 의하면, 저학년으로 갈수록 대체로 모든 동기의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7가지 동기 중 교사 동기에서 가장 큰 편차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어릴수록 교사에게 받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4) 성별과 학년에 따른 동기

(1) 남학생의 학년별 동기

<표 12> 남학생의 학년별 동기

구분	4학년 (n=25)		5학년 (n=35)		6학년 (n=33)		F	p
	M	SD	M	SD	M	SD		
자기발전적 동기	3.34	1.18	3.30	.99	3.34	.89	.015	.985
내적 동기	2.70	1.42	2.76	1.12	2.65	1.19	.062	.939
도구적 동기	2.78	1.20	3.06	.86	2.98	1.01	.591	.556
의사소통 동기	2.77	1.35	3.14	.92	3.41	1.15	2.271	.109
통합적 동기	2.58	1.12	2.66	.84	2.55	1.01	.120	.887
외적 동기	3.11	1.20	3.11	.78	3.18	1.13	.050	.951
교사 동기	2.92	1.39	3.14	1.16	2.92	1.10	.355	.702

p < .05

<표 12>에 의하면 4학년 남학생들은 자기 발전적 동기, 외적 동기, 교사 동기의 순으로 동기 부여가 되고, 5학년 남학생들은 자기 발전적 동기, 의사소통 동기, 교사 동기의 순으로 동기 부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 남학생들은 의사소통 동기, 자기 발전적 동기, 외적 동기 순으로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게 나타난 동기는 통합적 동기였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의사소통 동기와 외적 동기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과 환경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의사소통 동기의 경우 학년이 증가할수록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라 판단되어진다.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를 분석해보면 전학년 모두 통합적 동기보다 도구적 동기가 높았고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중에서는 전학년 모두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가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선행연구 (이효웅, 1999)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준편차가 컸던 것은 4학년과 6학년의 의사소통 동기였고 5학년의 경우 교사에 의한 동기화에 큰 개인차가 있었다. 4학년은 모든 동기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모든 동기에서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학년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남학생은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 중 도구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고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중에서는 외적 동기에 의해 보다 강하게 동기가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영어학습에 있어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의사소통 동기와 외적 동기이었다.

(2) 여학생의 학년별 동기

<표 13> 여학생의 학년별 동기

구분	4학년 (n=25)		5학년 (n=35)		6학년 (n=30)		F	p
	M	SD	M	SD	M	SD		
자기발전적 동기	3.44	.66	3.32	.97	3.31	.67	.213	.808
내적 동기	2.93	.94	3.11	1.08	3.03	.94	.249	.780
도구적 동기	3.08	.81	3.22	.87	3.23	.86	.254	.776
의사소통 동기	3.07	1.06	3.26	.93	3.23	1.10	.280	.757
통합적 동기	2.60	.82	2.70	.99	2.57	.97	.156	.856
외적 동기	3.51	.95	3.11	.97	3.14	.85	1.512	.226
교사 동기	3.23	1.11	3.29	1.06	2.68	1.00	3.088	.051

p < .05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 여학생은 외적 동기, 5학년과 6학년 여학생은 자기 발전적 동기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동기 분석에 있어 가장 낮게 나타난 동기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통합적 동기이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기 발전적 동기는 감소하고 도구적 동기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점차 좋은 성적이나 진학을 위해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6학년 여학생의 교사 동기는 두드러지게 감소되었다. 이 결과는 사춘기로 접어드는 무렵의 여학생들의 심리적인 동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중에서 전학년은 외적 동기가 보다 강하고 5학년의 경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동일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는 도구적 동기가 통합적 동기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위의 분석을 정리하여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동기를 학년별로 살펴

보면 모든 학년과 모든 성별에서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가, 통합적 동기보다 도구적 동기가 영어학습에 있어 더 강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도구적 동기가 증가하였고 남학생들은 의사소통 동기와 외적 동기가 증가하였다. 6학년 여학생의 경우 교사에 의해 영어학습에 영향을 받는 교사 동기의 감소를 주목할 만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전략분석

1) 전반적 전략분석

<표 14>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은 직접전략 (M=2.83)보다 간접전략 (M=2.91)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인지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들은 선행연구 (김영민, 1998; 김정미, 2003; 박춘식, 2001; 채미정, 2001)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초등 학교 학습자들은 영어학습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학습 전략 사용이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어진다.

<표 14> 전반적 전략분석

구분		M	SD
직 접 전 략	기억 전략	2.75	.81
	인지적 전략	2.89	.80
	보상 전략	2.86	1.01
	전체 직접 전략	2.83	.81
간 접 전 략	상위인지 전략	3.15	.95
	정의적 전략	2.76	.99
	사회적 전략	2.81	.95
	전체 간접 전략	2.91	.88

상위인지 전략의 경우 6가지 전략 중 M=3.15로 초등학교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들은 영어 학습을 할 때 주의집중을 많이 하며, 외국어 학습 목표를 장기와 단기로 계획하고 스스로 영어 학습 기회를 찾고 학습에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영어 학습을 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김영민 (1998)과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나 박춘식 (2001), 김정미 (2003)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것은 지역과 학습 환경 등에 의해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연구를 포함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위인지 전략의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러 동기와의 상관관계에서 논의할 것이다. <표 14>의 각 전략간 표준편차를 보면 보상전략의 표준편차가 1.01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상전략의 사용은 초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있어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초·중·고·대학생의 전략 비교

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기억 전략	2.75	2.66	2.86	2.94
인지 전략	2.89	2.84	2.82	2.91
보상 전략	2.86	3.07	3.31	3.36
상위인지 전략	3.15	2.73	2.80	2.88
정의적 전략	2.76	2.38	2.39	2.55
사회적 전략	2.81	2.89	2.65	2.91

* 이효웅 (1999)

** 이효웅 (1994)

<표 15>에서와 같이 인지 전략의 경우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사용이 감소하고 대학생은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입시로 인한 부담 때문에 배운 것을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되어진다. 그리고 인지 전략과 반대로 보상 전략의 경우 중·고·대학생으로 갈수록 사용이 증가하고 초등학생의 보상 전략 사용은 초·중·고·대학생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은 추측능력이 약하여 적절한 표현을 생각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표현력 부족 때문이라 추측되어진다.

종합하여 보면, 초등학생들은 상위인지 전략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상전략은 개인마다 사용에 있어 차이가 컸다. 초등학생들은 전략 사용에 있어 다양하게 사용하나 이는 초보 영어학습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이 효과적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어진다.

2) 성별에 따른 전략

<표 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직접 전략보다 간접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성별에 따른 전략

구분	남학생 (n=93)		여학생 (n=90)		t	p	
	M	SD	M	SD			
직접 전략	기억 전략	2.72	.84	2.79	.78	-.570	.569
	인지 전략	2.82	.80	2.97	.80	-1.243	.216
	보상 전략	2.84	1.01	2.88	1.01	-.323	.747
전체 직접 전략		2.79	.83	2.88	.80	-.731	.466
간접 전략	상위인지 전략	3.11	1.00	3.19	.91	-.603	.548
	정의적 전략	2.74	1.03	2.79	.96	-.381	.704
	사회적 전략	2.77	.98	2.85	.92	-.604	.547
전체 간접 전략		2.87	.92	2.95	.84	-.578	.564

p < .05

<표 16>에 의하면 남, 여 모두 모든 전략 중 상위인지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박춘식 (2001)과 김영민 (1998)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남, 여에 상관없이 모두 상위인지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략 사용에서 보면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Ehrman & Oxford, 1989; Politzer, 1983; 김영민, 1998; 박영예, 1999; 박춘식, 2001; 이효웅, 1994).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언어능력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

능력이 발달하여 대화를 통해 집단과의 삶을 지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서도 학생이 남학생 보다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 특히 여학생과 남학생의 인지적 전략의 차이가 유의수준과 거의 가깝게 차이가 났다. 즉, 여학생은 영어를 학습할 때 남학생보다 더 학습할 기회를 찾고 아이디어를 더 재빨리 받아들이고, 더 연역적으로 추론하고 여러 언어를 비교 분석하고, 번역하고 전이하고 기록하고 요약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략 사용과 중·고·대학생의 선행 연구사례를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초·중·고·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략 사용 비교

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기억전략	2.72	2.79	2.58	2.74	2.80	2.91	2.54	2.70
인지적 전략	2.82	2.97	2.74	2.95	2.75	2.88	2.89	3.14
보상전략	2.84	2.88	2.99	3.15	3.22	3.40	3.45	3.44
상위인지 전략	3.11	3.19	2.59	2.87	2.76	2.84	2.78	3.16
정의적 전략	2.74	2.79	2.33	2.43	2.35	2.41	2.68	3.03
사회적 전략	2.77	2.85	2.68	3.09	2.54	2.75	2.75	3.07

*이효웅 (1999)

**박영예 (1998)

<표 17>에서 보면 초·중·고·대학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부분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인지적 전략,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보상 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꾸준히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인지능력도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어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략 사용에 있어 여학생의 전략 사용이 남학생의 전략 사용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학년이 증가하여도 같은 결과가 계속 이어짐을 알 수 있다.

3) 학년에 따른 전략

<표 18> 학년에 따른 전략

구분	4학년 (n=50)		5학년 (n=70)		6학년 (n=63)		F	p	
	M	SD	M	SD	M	SD			
직접 전략	기억 전략	2.77	.82	2.77	.80	2.72	.82	.064	.938
	인지적 전략	2.85	.77	2.90	.77	2.92	.86	.087	.917
	보상 전략	2.91	1.06	2.86	.93	2.82	1.07	.102	.903
	전체 직접 전략	2.84	.83	2.84	.76	2.82	.86	.017	.983
간접 전략	상위인지 전략	3.24	.96	3.12	.93	3.11	.98	.311	.733
	정의적 전략	2.87	1.00	2.77	.94	2.67	1.05	.573	.565
	사회적 전략	2.95	1.02	2.83	.88	2.67	.96	1.263	.285
	전체 간접 전략	3.02	.91	2.91	.81	2.82	.93	.750	.474

p < .05

<표 18>에서와 같이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상위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만 기억전략의 사용은 많지 않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기억과 연상보다는 계획, 집중 등을 통해 영어를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모든 전략 사용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선행 연구인 박춘식 (2001)과 김정미 (200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인지적 전략만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Chamot & Kupper (1989)의 ‘학습자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지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와 동일한 4, 5, 6학년 연구를 한 김정미 (2003)의 연구에서도 상위인지 전략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국내 초등학생은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처럼 학년이 증가할수록 인지능력이 발달하여 인지적 전략 사용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증가할수록 대체로 전략 사용의 양은 감소하지만 인지능력의 발달로 인지적 전략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전략

(1) 남학생의 학년별 전략

남학생은 학년에 상관없이 대체로 간접전략을 더 사용하나 전략 사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19> 남학생의 학년별 전략

구분	4학년 (n=25)		5학년 (n=35)		6학년 (n=33)		F	p	
	M	SD	M	SD	M	SD			
직 접 전 략	기억 전략	2.82	.91	2.72	.71	2.65	.93	.290	.749
	인지적 전략	2.83	.88	2.87	.63	2.77	.90	.125	.883
	보상 전략	2.91	1.18	2.89	.74	2.73	1.14	.288	.750
전체 직접 전략		2.85	.94	2.82	.62	2.71	.93	.232	.794
간 접 전 략	상위인지 전략	3.25	1.03	3.10	.87	3.01	1.11	.396	.674
	정의적 전략	2.90	1.14	2.71	.85	2.64	1.14	.462	.632
	사회적 전략	2.93	1.17	2.84	.81	2.58	.98	1.061	.350
전체 간접 전략		3.03	1.05	2.88	.71	2.74	1.02	.661	.519

p < .05

<표 19>에서 4, 5, 6학년 남학생들은 대부분 상위인지 전략과 인지적 전략 사용을 선호하며 4학년부터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모든 전략 사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위인지 전략과 인지적 전략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인지발달의 영향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략 사용의 감소는 영어를 학습해가면서 어떠한 전략이 자신의 학습에 효과적인지 깨닫게 됨에 따라 자신의 학습에 효율적이지 못한 전략 사용의 양을 줄이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학년별로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전략을 살펴보면 4학년은 기억전략을, 5학년은 정의적 전략을, 6학년은 사회적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전략 사용 표준편차는 다른 학년에 비해 많이 큰데 이것을 통해 초등 4학년은 대부분의 전략 사용에 있어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학생의 학년별 전략

<표 20> 여학생의 학년별 전략

구분	4학년 (n=25)		5학년 (n=35)		6학년 (n=30)		F	p	
	M	SD	M	SD	M	SD			
간접 전략	기억 전략	2.72	.73	2.82	.89	2.81	.70	.130	.879
	인지적 전략	2.88	.66	2.93	.89	3.08	.79	.465	.630
	보상 전략	2.91	.94	2.83	1.09	2.92	.99	.071	.932
	전체 간접 전략	2.84	.72	2.86	.89	2.94	.77	.120	.887
직접 전략	상위인지 전략	3.23	.90	3.15	1.01	3.21	.82	.076	.927
	정의적 전략	2.85	.86	2.83	1.04	2.71	.96	.185	.831
	사회적 전략	2.98	.87	2.83	.96	2.78	.94	.344	.710
	전체 직접 전략	3.02	.76	2.93	.91	2.90	.83	.143	.867

p < .05

<표 20>에서와 같이 영어를 학습할 때, 4학년 여학생은 상위인지 전략, 사회적 전략, 보상 전략 순으로, 5학년은 상위인지 전략, 인지적 전략, 보상 전략 순으로, 6학년 여학생은 상위인지 전략, 인지적 전략, 보상 전략 순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의 경우 인지적 전략과 보상 전략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 여 학생 모두 상위인지 전략을 선호하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인지적 전략과 보상 전략을 선호하는데 이는 인지발달로 인한 결과라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전략 사용에 있어 전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상관관계 분석

1)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표 21>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구분	직접전략			간접전략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	상위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
자기발전적 동기	.426**	.507**	.442**	.568**	.353**	.402**
내적 동기	.422**	.536**	.444**	.538**	.361**	.394**
도구적 동기	.394**	.476**	.447**	.494**	.372**	.434**
의사소통 동기	.264*	.283*	.356**	.338**	.311*	.356**
통합적 동기	.451**	.546**	.543**	.548**	.427**	.483**
외적 동기	.341**	.403**	.403**	.488**	.354**	.401**
교사 동기	.174	.241	.230	.365**	.105	.226

*p< .05

**p< .01

<표 21>에 의하면 상위인지 전략은 모든 동기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자기 발전적 동기와 상위인지 전략이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식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기를 바라고 자신의 미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동기가 강한 학습자들은 주의 집중을 보다 많이 하고 학습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학습에 대한 진전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표 21>을 통해 알 수 있다.

자기 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이효용 (199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통합적 동기와 내적 동기는 상위인지 그리고 인지적 전략과 상관관계가 높았고 도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상위인지, 인지, 보상 전략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의사소통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기는 상위인지 전략과 관련이 있었다. 의사소통 동기의 경우 외국인이나 영어가 뛰어난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동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전략과 타인과의 대화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되물거나 타인을 이해하는 사회적 전략의 사용과 의사소통 동기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의적 전략은 영어로 대화를 할 때 불안을 느끼기 쉬운 우리 나라 학습자에게 유용한 전략일 것이다. 때문에 정의적 전략을 사용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사 동기는 모든 전략 사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위인지 전략과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의 교사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할 때 주의집중을 요구하고 학습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것을 권유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상위인지 전략은 모든 동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 중 자기 발전적 동기와 상위인지 전략의 상관관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자기 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학습자들은 상위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하거나 반대로 상위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이 자기 발전적 동기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동기는 다른 전략사용과의 상관관계가 작지만 보상 전략 및 사회 전략과는 상관관계가 높았다. 교사에 의한 학생의 동기는 다른 전략사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지만 상위인지 전략과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교사들이 주의집중을 자주 요구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지고 교사는 영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볼 때 그들이 학습자의 전략 사용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학습자가 영어 학습을 할 때 적용시키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성별에 따른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표 22> 성별에 따른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구분	직접전략			간접전략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	상위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	
남학생	자기발전적 동기	.560**	.563**	.538**	.563**	.512**	.432**
	내적 동기	.609**	.611**	.557**	.573**	.532**	.428**
	도구적 동기	.483**	.462**	.406**	.444**	.468**	.353**
	의사소통 동기	.417**	.464**	.417**	.346**	.438**	.342**
	통합적 동기	.516**	.539**	.493**	.494**	.443**	.397**
	외적 동기	.347**	.360**	.442**	.387**	.373**	.277**
	교사 동기	.329**	.332**	.333**	.397**	.313**	.246*
여학생	자기발전적 동기	.578**	.564**	.582**	.531**	.426**	.479**
	내적 동기	.432**	.450**	.441**	.341**	.282**	.341**
	도구적 동기	.395**	.462**	.478**	.443**	.282**	.348**
	의사소통 동기	.389**	.360**	.477**	.430**	.414**	.417**
	통합적 동기	.429**	.454**	.497**	.389**	.398**	.393**
	외적 동기	.273**	.347**	.380**	.409**	.249*	.362**
	교사 동기	.285**	.232*	.280**	.191	.129	.221*

*p < .05

**p < .01

<표 22>에서 남학생의 모든 동기와 전략과의 관계 중 내적 동기와 기억, 인지적 전략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두드러지게 어떠한 특정 전략과 동기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은 보상 전략과 모든 동기와 상관관계가 높았고 자기 발전적 동기와 모든 전략 사용에 상관관계가 높았다. <표 22>에서 주목할만한 두 가지 결

과 중 첫째는 남학생의 경우 자기 발전적 동기와 인지적 전략 및 상위인지 전략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학생은 자기 발전적 동기와 보상 전략, 사회적 전략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남학생은 자기 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인지와 관련된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학생은 자기 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외국어에 대한 지식 부족이 생기면 몸짓을 이용해서 혹은 비슷한 다른 말을 주조해서 대화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주제 선정과 같은 방법으로 영어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여성의 언어능력이 발달하여 주변과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주목할만한 결과는 교사로 인한 동기 부여이다. 남학생은 교사 동기가 전략사용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지만 여학생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상위인지 전략과 정의적 전략과의 관계가 (-)의 결과로 교사의 영향이 강할수록 상위인지 전략 사용이 적거나 자신의 불안을 낮추려고 하거나 자신을 고무시키는 일, 타인과 감정교류를 하려고 하는 전략이 낮은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우리 나라 환경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교사의 위엄이 큰 편이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수동적인 편이다. 그러한 환경이 학습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학생의 상위인지 전략과 정의적 전략에서 낮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되어지나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만 그러한 것인지 다른 연구에서도 교사 동기가 학생의 상위인지 전략과 특히 정의적 전략과의 상관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학년별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여기에서는 학년에 따른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표 23> 학년별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

구분	직접전략			간접전략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	상위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	
4 학 년	자기발전적 동기	.596**	.617**	.562**	.569**	.529**	.448**
	내적 동기	.472**	.549**	.463**	.441**	.389**	.341*
	도구적 동기	.382**	.457**	.370**	.351*	.398**	.278
	의사소통 동기	.465**	.486**	.475**	.433**	.537**	.368**
	통합적 동기	.380**	.421**	.347*	.375**	.351*	.259
	외적 동기	.305*	.342*	.480**	.365**	.352*	.299*
	교사 동기	.374**	.397**	.334*	.297*	.341*	.274
5 학 년	자기발전적 동기	.657**	.579**	.656**	.526**	.543**	.500**
	내적 동기	.684**	.550**	.601**	.455**	.526**	.446**
	도구적 동기	.564**	.466**	.501**	.501**	.423**	.373**
	의사소통 동기	.537**	.521**	.559**	.436**	.524**	.488**
	통합적 동기	.574**	.505**	.573**	.403**	.477**	.425**
	외적 동기	.303*	.331**	.358**	.328**	.240*	.234
	교사 동기	.381**	.263*	.368**	.270*	.249*	.185
6 학 년	자기발전적 동기	.426**	.507**	.442**	.568**	.353**	.402**
	내적 동기	.422**	.536**	.444**	.538**	.361**	.394**
	도구적 동기	.394**	.476**	.447**	.494**	.372**	.434**
	의사소통 동기	.264*	.283*	.356**	.338**	.311*	.356**
	통합적 동기	.451**	.546**	.543**	.548**	.427**	.483**
	외적 동기	.341**	.403**	.403**	.488**	.354**	.401**
	교사 동기	.174	.241	.230	.365**	.105	.226

*p< .05

**p< .01

<표 23>에 의하면, 4학년은 인지적 전략과 동기와 상관관계가 높았고, 그 중 자기 발전적 동기와 인지적 전략의 상관관계가 가장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동기는 인지적 전략을 제외하고 전략사용과 상관관계가 낮았다. 그 중에서 교사 동기와 사회적 전략 사용과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5학년은 기억전략과 모든 동기와 상관관계가 높았고 그 중 자기 발전적 요인과 기억 전략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의사소통 동기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보상전략이었고 교사 동기는 기억전략과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4학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전략과의 상관관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은 상위인지 전략과 모든 동기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4, 5학년과 달리 의사소통 동기는 보상 전략 과 사회적 전략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학년별로 비교해볼 때 주목할만한 일이다. 교사 동기는 다른 학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전략과 상관관계가 낮았지만 상위인지 전략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전략과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것은 6학년의 인지발달과 자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로 인한 동기가 4학년에는 인지적 전략, 5학년에는 기억 전략, 6학년에는 상위인지 전략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교사의 수업방식에 기인할 것이다. 교사가 추론을 지향하거나 메시지 이해 중심의 수업 방식 등의 인지적 전략으로 수업을 하느냐 기억 전략 방식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 중 6학년은 교사를 능숙한 영어 사용자라 생각하고 그들의 학습을 배워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체로 모든 학년에서 교사 동기와 사회적 전략 사용이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우리 나라 교사의 위엄으로 인한 결과라 판단되는데 교사의 위엄으로 모르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든지, 다시 반복해주길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6학년의 경우 교사 동기와 모든 전략 사용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상위인지 전략 사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6학년은 수업에 있어 교사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은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상태와 영어 교사를 능숙한 영어사용자라 판단하여 그들의 학습을 배워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영어학습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동기와 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된 연구였다. 언어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에 있는 초등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그들의 영어학습에 있어서의 동기와 전략은 무엇이고 영어학습 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시내 초등학교 4, 5, 6학년 183명을 표본 집단으로 하여 동기는 이효용 (1999)과 조춘미 (2000)의 선행 측정도구로 조사하였고 전략은 Oxford (1990)의 SILL 중 외국인을 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초등영어학습자가 주로 가지고 있는 영어학습 동기는 자기 발전적 동기로 나타났으며 통합적 동기보다는 도구적 동기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중에서는 내적인 성취나 성공 등을 위해서 보다 외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와 같은 원인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 더 강한 동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학습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교사의 영향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 중 여학생이 영어를 공부하고자하는 동기화가 더 강하게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는 특히 그들의 자기 발전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있어 4, 5, 6학년 모두 7가지 동기 중에서 자기 발전적 동기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년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동기는 4학년 외적 동기였고 5학년은 교사로 인한 동기와 도구적 동기로 조사되었다. 6학년은 의사소통 동기가 가장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초등학생은 영어를 공부할 때 상위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고등학생의 전략 사용과 비교를 해볼 때,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상위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학생과 남학생 중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 좌·우 양쪽 뇌에 언어 능력이 고루 분포되어 남성보다 언어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모든 전략 사용이 감소하였으나 인지적 전략과 상위인지 전략의 사용은 증가하였다. 이것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인지능력이 더 발달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3. 영어학습동기와 전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7개의 동기 범주 전 분야와 상위인지 전략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7가지 동기 중 자기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상위인지 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략 사용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교사 동기는 모든 전략 사용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내적 동기와 기억전략 사용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자기발전적 동기와 보상 전략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동기와 전략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6학년의 교사 동기는 모든 학년과의 비교에서 전략 사용과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교사 동기와 상위인지 전략과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6학년의 경우 약 3년간 영어학습을 경험하면서 교사를 성공적인 영어 학습자라 간주하고 교사의 전략 사용에 주목한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영어교과담당자에게 학습자들이 주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지 또 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알게 함으로서 그들의 영어 교수 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취도와 동기 및 전략과의 상관관계는 시간과 측정도구의 문제로 제외되었으나 차후의 연구에서는 영어성취도가 높은 집단을 연구한 후 그들의 동기와 전략을 연구한다면 초등영어교과 담당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초등학생의 동기와 전략 연구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초등영어교육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권형자. (1992). *학습동기 귀인성향, 학습시간과 학습성취와의 상관 및 귀인들이 후기 성취기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영민. (1998). *초등영어교육에서의 학습전략의 효과적 사용*. *영어교육*, 53, 87-106.
- 김정미. (2003). *초등학생의 영어학습 동기, 전략과 성취도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김형엽 외 2인. (2002). *언어, 그 신비로운 세계*. 서울: 경진문화사.
- 문현규. (2002). *초등영어 습득과 동기부여와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박기표. (1998).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nd English proficiency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Foreign Language Annuals*, 30, 211-221.
- 박영예. (1999). 학습전략과 학습스타일: 인문계 전공자와 이공계 전공자간의 비교분석. *Foreign Language Education*, 6, 271-296.
- 박춘식. (2001). *학습 전략이 초등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이옥주. (1998). *영어학습동기, 학습전략 사용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용인. (1995). *영어학습 동기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혜원. (1993). *귀인 성향과 학습동기 및 학업성적간의 상보적 효과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이효웅. (1994). *외국어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 중고대학생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48, 51-99.

- _____. (1999). *영어학습 태도, 동기 및 책략과 성취도와의 상관 관계*. 서울: 한국문화사.
- 정은희. (2003). *중학생의 영어학습 동기 및 책략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조춘미. (2000). *영어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채미정. (2001). *초등영어학습자의 학습전략 분석 및 지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Babara, J. (2000). *Why men don't listen & women can't read maps*. New York: Broadway Books.
- Bialystok, E. (1981). The role of conscious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proficiency. *Modern Language Journal*, 65, 24-35.
- Brown, H.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 Hall.
- Chamot, A. U. & Kupper, L. (1989). Learning strategies in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Foreign Language Annals*, 22, 13-24.
- Chamot, A. U., O'Malley, J. M., Kupper, L., & Impink-Hernandez, M. (1987). *A study of learning strategies in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First year report*. Arlington, VA: InterAmerica Research Associates.
- Chastain, K. (1975). Affective and ability factor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5, 153-161.
- Cohen, A. D. (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New York: Longman.
- Crystal, D. (199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y, J. T. (1987). Students motivation, academic validity and the summer language program abroad: An editorial. *Modern Language Journal*, 71, 261-266.
- Deci, E. L., Schwartz, A. J., Sheinman, L. & Ryan R. M. (1981). An instrument to assess adult's orientation toward control versus autonomy with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642-650.
- Chastain, K. (1975). Affective and ability factor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5, 153-161.
- Evans, D. W. (1982). *Relations between attitude of Korean businessmen and three types of attainment in English: Global proficiency, intonative performances, and discrete-point academic achievemen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 _____. (1988). The socio-educational model of second-language learning Assumptions, finding, and issues, *Language Learning*, 38, 101-126.
- _____, (1995). *Leading Minds*. New York: Basic Books.
- _____, & Lambert, W. E. (1959). Motivational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13, 266-272.
- _____, & Lambert, W. E.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ssachusetts: Newbury House publishers.

- _____, & MacIntyre, P. D. (1991). An instrumental motivation in language study: Who says it isn't effectiv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 57-72.
- _____, & MacIntyre, P. D. (1993). On the measurement of affective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43, 157-194.
- Harmer, J. (199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New York: Longman
- Harter, S. (1987). The determinants and media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in children In N. Eisenberg (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219-241). New York: John Wiley & Son.
- Harter, S. & Jackson, B. K. (1992). Trait vs. nontrait conceptualizations of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 *Motivation and Emotion*, 16, 209-229.
- Heyman, G. D. & Dweck, C. S. (1992).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Their relation and their role in adaptive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16, 231-247.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 Lukmani, Y. M. (1972). Motivation to learn and learning proficiency. *Language Learning*, 22, 261-273.
- MacIntyre, P. D. & Noels, K. A. (1996). Using social-psychological variables to predict the use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Foreign Language Annals*, 29, 373-386.
- O'Malley, J. M.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bury House.
- _____, & Nyikos, M. (1989). Variables affecting choice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by university students. *Modern Language Journal*, 73, 291-300.
- _____, Nyikos, M. & Ehrman, M. (1988). Vive la difference? Reflections on sex differences in use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Foreign Language Annals*. 21, 321-329.
- Politzer, R. L. (1983). An exploratory study of self-reported language learn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achievemen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6, 54-65.
- Sansone, C. & Morgan, C. (1992). Intrinsic motivation and education: Competence in context. *Motivation and Emotion*, 16, 249-269.
- Scarcella, R. C. & Oxford, R. L. (1992). *The tapestry of language learning: The individual in the communicative classroom*. Boston: Heinle & Heinle.
- Scovel, T. (1969). Foreign accents, language acquisition, and cerebral dominance. *Language Learning*, 19, 245-154.
- Spolsky, B. (1969). Attitudinal aspect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19, 271-283.
- Strong, M. (1984). Integrative motivation: Cause or effect of successful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34, 1-14.
- Svanes, B. (1987). Motivation and cultural distan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37, 341-359.
- Wen, Q. & Johnson, R. K. (1997). L2 Learner variables and English achievement: A study of tertiary-level English majors in China. *Applied Linguistics*, 18, 27.

- Wen, X. (1997). Motivation and language learning with students of Chinese. *Foreign Language Annals*, 30, 235-251.
- Wenden, A. L. (1986). Incorporating learner training in the classroom. *System*, 14, 315-325.
- _____, & Rubin, J. (Eds.). (1987).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Abstract

A Study on Motivation and Strategie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Learners of English

Jo, Mi-ra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hree-fold: (1) to investigate Korean elementary school learner motivation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2) to examine strategies which they use in learning English, and (3)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motivation and strategies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The subjects were 183 English learners in two elementary schools in Busan, Korea. Thirty questions were used in order to investigate motivation in English learning. The questions were selected from questionnaires of both Cho (2000) and Lee (1999).

Motivation is divided into seven subcategories: self-development, communication, intrinsic, extrinsic, integrative, instrumental, and student motivation by teachers. Strategies consist of six subcategories: memory, cognitive, compensation, meta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strategies.

The t-test was used to analyze each of the motivation and strategy items, ANOVA to analyze differences of motivation and strategies related to grades and gender, and Pearson's correlation

program to analyze relations between motivation and strategies.

The thre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elf-developmental motivation is the strongest among the seven subcategories of motivations in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the sociocultural motivation is the least strong motivation for elementary-school learners of English. Unexpectedly, this study shows that student motivation by teachers is relatively low. Instrumental motivation is stronger than integrative motivation in learning English. Extrinsic motivation is stronger than intrinsic motivation. Girls are possessed of stronger motivations than boys. Regardless of grades, students mainly possess self-developmental motivation in learning English.
2. Elementary school English learners tend to use metacognitive strategies most frequently. This means that Korean elementary school learners tend to spend much time in planning, self-evaluation, and attention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Girls have been found to use strategies more frequently than boys. At the higher grade level, learners tend to use more metacognitive and cognitive strategies more often.
3. The correlations between self-developmental motivation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are of the highest significance. On the other hand, student motivation by the teacher is in a low correlation with all other strategi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of use in studies on motivation and strategies, and contribute to the future improvement of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12. 나는 영어 발음을 연습한다.	【 5 4 3 2 1 】
13. 나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	【 5 4 3 2 1 】
14. 나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로 나오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비디오 테잎 등)를 본다.	【 5 4 3 2 1 】
15. 나는 독서하는 즐거움을 위해 영어로 된 글(동화책, 어린이 영어신문, 잡지 등)을 읽는다.	【 5 4 3 2 1 】
16.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나는 먼저 대충 한번 전체 글을 훑어보고 난 후 처음으로 되돌아가 자세히 읽는다.	【 5 4 3 2 1 】
17. 나는 새로운 영어 낱말과 비슷한 낱말이 우리말에 있는지 찾아본다.	【 5 4 3 2 1 】
18. 나는 영어의 규칙(규칙적인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5 4 3 2 1 】
19. 나는 영어를 듣거나 읽을 때 한 낱말씩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5 4 3 2 1 】
20. 내가 잘 모르는 영어 낱말이 나올 때 그림이나 상황을 생각해서 그 뜻을 추측해본다.	【 5 4 3 2 1 】
21. 영어로 말하다가 낱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손짓발짓(몸동작)으로 표현한다.	【 5 4 3 2 1 】
22. 나는 영어를 읽을 때 모르는 낱말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는다.	【 5 4 3 2 1 】
23. 나는 영어를 말하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찾아보려고 한다.	【 5 4 3 2 1 】
24. 내가 영어를 할 때 무엇이 틀리는지 알아내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 5 4 3 2 1 】
25. 나는 누군가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 5 4 3 2 1 】
26. 나는 영어를 더 잘 배우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노력한다.	【 5 4 3 2 1 】
27. 나는 나의 생활을 계획할 때 영어 공부할 시간이 있도록 한다.	【 5 4 3 2 1 】
28. 나는 영어로 대화를 나눌만한 사람(친구, 선생님, 외국인 등)을 찾아본다.	【 5 4 3 2 1 】
29. 나는 영어로 된 글을 가능한 많이 읽을 기회를 찾는다.	【 5 4 3 2 1 】
30. 나는 나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공부한다.	【 5 4 3 2 1 】
31. 나는 내 영어실력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 5 4 3 2 1 】
32.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두려울 때, 나는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려고 노력한다.	【 5 4 3 2 1 】
33. 틀릴까봐 겁이 나더라도 용기를 내어 영어로 말하도록 노력한다.	【 5 4 3 2 1 】
34. 내가 영어를 잘 했을 때에는 (수업 중이나 시험에서)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한다.	【 5 4 3 2 1 】

35. 영어를 공부하거나 사용할 때,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느낀다.	【 5 4 3 2 1 】
36. 상대방이 말한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을 때, 천천히 혹은 다시 말해 달라고 한다.	【 5 4 3 2 1 】
37. 나는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연습한다.	【 5 4 3 2 1 】
38. 나는 영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물어본다.	【 5 4 3 2 1 】
39. 나는 영어로 질문한다.	【 5 4 3 2 1 】
40. 나는 영어권의 문화(예: 미국의 문화, 영국의 문화 등)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한다.	【 5 4 3 2 1 】
41. 나는 우리말과 영어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본다.	【 5 4 3 2 1 】
42. 나는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전체적인 뜻을 통해 그 낱말의 뜻을 추측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 5 4 3 2 1 】
43. 나는 영어를 하다가 생긴 나의 실수로부터 올바른 영어를 배운다.	【 5 4 3 2 1 】
44. 나는 영어 테잎을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한다.	【 5 4 3 2 1 】
45. 나는 교과서(역할놀이 대본)를 소리내어 자주 읽는다.	【 5 4 3 2 1 】
46.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	【 5 4 3 2 1 】
47. 나는 영어 테잎을 듣고 받아쓰는 연습을 한다.	【 5 4 3 2 1 】
48. 나는 영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즉시 찾아서 확인한다.	【 5 4 3 2 1 】
49. 나는 영어를 잘하기 위하여 영어 과외나 학원에 다닌다.	【 5 4 3 2 1 】
50. 나는 영어 낱말이나 글(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잘 기억하기 위해 마인드 맵을 해본다.	【 5 4 3 2 1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느정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3.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서					
14. 좋은 영어성적을 받기위해서					
15.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16. 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7. 영어를 말하는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18. 부모님, 가족 등 주변에서 해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19. 영어 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20. 영어 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21.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2. 영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23. 외국어를 배운다는 나의 만족 때문에					
24.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25. 미국인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26.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27. 펜팔을 하기 위하여					
28. 영어로 된 노래, 영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29. 영어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30.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 위에 나오지 않은 그 밖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적어주세요.